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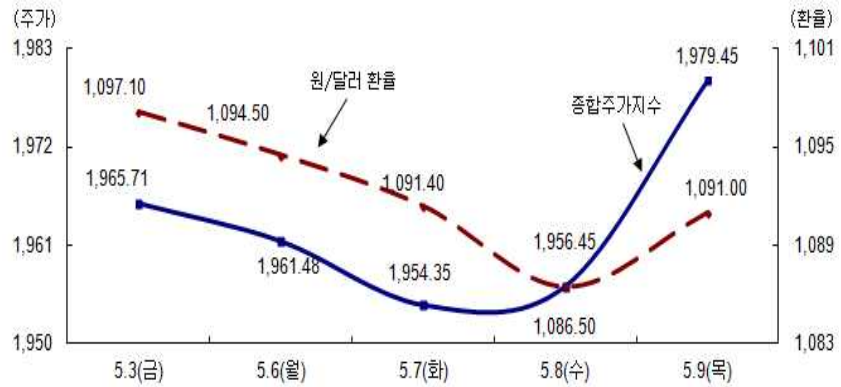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동북아 인프라 시장 전망과 시사점

-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3~5.9)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동북아 인프라 시장의 전망과 시사점	1
-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정 민 선 임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이 부 형 수 석 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동북아 인프라 시장의 전망과 시사점 -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 ■ 중·러 중심 동북아 인프라 시장 확대 기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 증대하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인프라시장 규모는 2010년 2,824억 달러에서 2020년 6,153억 달러로 연평균 8.1%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인프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2.0%(1,752억 달러)에서 2020년 74.4%(4,578억 달러)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중·러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

중국과 러시아의 인프라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로 발전소와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부문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0년~2020년 사이에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2010년 1,308억 달러의 약 2.5배 수준인 3,2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의 비중은 동기간 56.9%에서 71.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도 교통·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인프라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와 물류 운송 등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에너지 수출을 위한 송유관 투자를 확대 등 관련 인프라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0년 444억 달러에서 2020년 1,351억 달러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인프라의 99%에 달하는 교통 부문과 에너지 부문 인프라 시장 규모가 2010년~2020년 사이에 연평균 11.8%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인프라 시장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프라 산업의 對 중국 및 러시아 인프라 시장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국내 전체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2012년 현재 648.8억 달러로 2000년 54.3억 달러에 비해 12배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對中 건설수주 규모는 2012년 3.2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공종별로 보면 특정 부문에 수주가 집중되어 있는 등 개선할 점들이 산적해 있다. 실제로 對中 건설수주 건수 중 건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44.0%까지 상승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75.5%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對 러시아 건설수주 중 건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는 2012년 30.8%, 금액 기준으로는 50.3%에 이른다. 더욱이, 對 러시아 건설수주의 건당 규모는 2007년 1억 달러로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1,140만 달러로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2015년까지 중국, 러시아 인프라 시장의 5%만 국내 인프라 수출이 가능하다면, 이들 두 국가 대상 인프라 수출은 2012년 기준 한국의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 648.8억 달러의 약 23%인 약 15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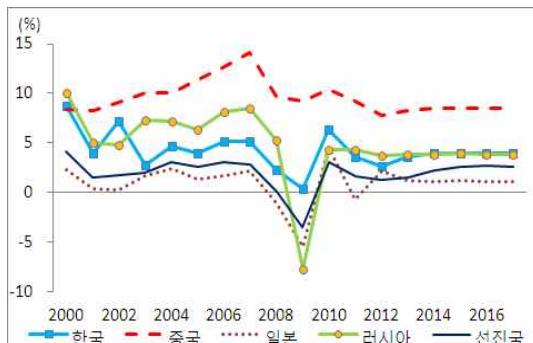
#### ■ 시사점

중국과 러시아의 인프라 시장은 향후 성장 기대가 클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기존 인프라 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첫째, 對 중국 및 러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對 중국 및 러시아 인프라 수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건설업 역량을 최대한 이용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현지 최적화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對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부문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인프라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1. 중·러 중심 동북아1) 인프라 시장 확대 기대

-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낙후된 인프라 개선 뿐 아니라 향후 소득 증가, 인구 급증, 도시화 진전 등으로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
  -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대 전후로, 러시아는 평균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선진국 성장률 평균 2.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낙후된 인프라 뿐 아니라 인구 증가, 도시화 진전 등에 따르는 인프라 수요 증대가 예상
    - 중국의 철도 인프라는 22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부문은 중위권 수준에 머물러 전체 인프라 순위는 144개국 중 69위
    - 러시아는 철도 인프라 30위를 제외하고 도로, 항구, 공항, 전기 공급 인프라 모두 하위권으로 전체 인프라 순위는 101위
    - 중국과 러시아의 도시화율은 2010년 각각 49.2%, 73.7%에서 2020년에는 각각 61.0%, 75.5%까지 확대될 전망2)

< 동북아 지역 국가 경제 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3*.

< 동북아 지역 국가의 인프라 순위 >

(144개국 중 순위)

부문별 순위	중국	러시아
전체인프라	69	101
도로	54	136
철도	22	30
항구	59	93
공항	70	104
전기 공급	59	84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주 : 인프라의 질에 관한 순위임.

1) 이하, 동북아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으로 제한함.

2)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 국가별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부문별로는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동북아 인프라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인프라 산업이란 인간의 일상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등의 시설뿐 아니라 법·제도·정부정책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 OECD에서는 교통, 전기, 통신, 물 등 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운송(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에너지 및 전력(발전/송배전), 물(상하수 처리시설), 통신(무선, 유선, 인터넷)의 4대 분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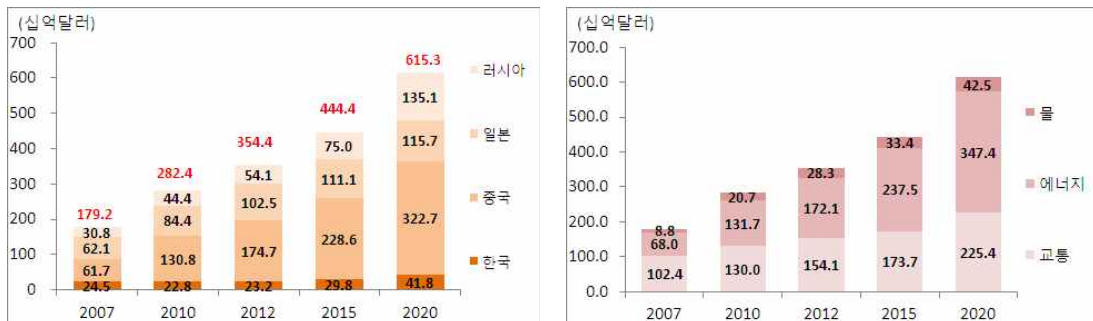
-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지속 확대 전망

- 동북아 인프라 시장규모는 2007년에 1,792억 달러에서 2010년 2,824억 달러로 연평균 16.4%씩 증가
-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8.1%씩 성장하여 2010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6,153억 달러에 달할 전망
- 동북아 인프라 시장 규모 중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각각 34.5%, 17.2%에서 2020년에 52.4%, 22.0%로 크게 확대됨

- 부문별로는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성장

- 에너지 인프라 시장은 2010년 1,317억 달러에서 2020년 3,474억 달러로 연평균 10.2% 성장이 예상되며, 동기간 비중도 46.6%에서 56.5%로 확대

< 동북아 국가별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 동북아 부문별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China Infrastructure Report 2013 1Q, Russia Infrastructure Report 2013 1Q, South Korea Infrastructure Report 2013 1Q, Japan Infrastructure Report 2013 1Q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교통 인프라는 도로 및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및 수로로 구성되며, 에너지 인프라는 발전소·송배전, 오일·가스 배관으로 구성됨.

## 2. 중·러 인프라 시장 현황과 전망3)

### ① 중국

#### ○ 전체 인프라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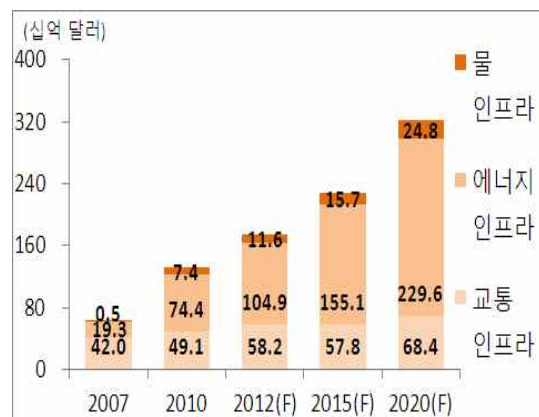
##### - 중국 인프라 시장은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 기대

- 중국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0~2020년 사이에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2010년 1,308억 달러의 약 2.5배 수준인 3,227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이는 에너지 부문이 2010년 744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296억 달러로 약 3배 이상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체 인프라 시장 규모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56.9%에서 71.1%로 급격히 증가하는데 기인
- 물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0년 74억 달러에서 2020년 248억 달러로 연평균 12.8% 성장이 예상되며, 동기간 비중은 5.6%에서 7.7%로 확대
- 반면에 교통 부문은 동기간 37.5%에서 21.2%로 축소

< 중국 전체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 부문별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China Infrastructure Report 2013 1Q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 부문별 인프라 시장

- 에너지 부문 : 최근 중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로 발전소 건설과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급격히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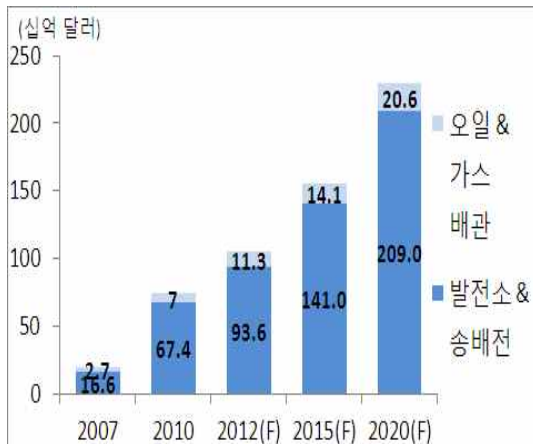
3)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자료는 국제무역연구원의 협력에 의한 것임.

- 중국의 에너지 부문 인프라 시장은 2007년 193억 달러에서 2010년 744억 달러로 3.8배 증가함
-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전력 산업 부문에 11.1조 위안의 투자 계획과 천연 가스 수송관 4.4만km, 원유수송관 8,400km, 330천 볼트 이상 수송 가능한 전선인프라 20만km 등의 신규 에너지 관련 인프라 건설 목표를 발표
- 2010년 744억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의 에너지 부문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0년에 2,296억 달러로 연평균 11.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발전소 및 송배전 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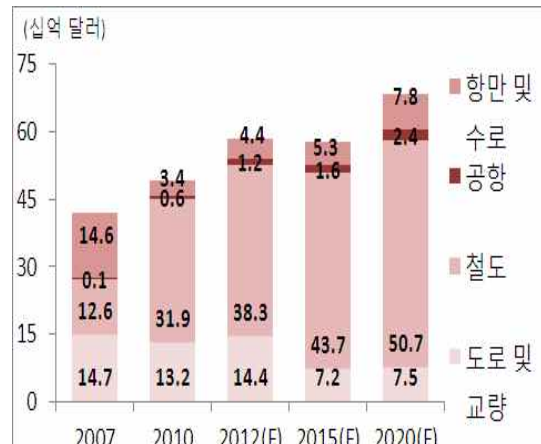
- 교통 부문

- 교통 부문 인프라 규모는 2007년 420억 달러에서 2010년 491억 달러로 16.9% 증가
- 중국정부는 도시화 진전, 경기 부양 정책 등으로 향후 3~8년 동안 전국 25개 도시 철도 및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8,000억 위안(약 1,2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승인 등 교통 부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 교통 부문 인프라 시장은 2010년 491억 달러에서 2020년 684억 달러로 연평균 3.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교통 부문 인프라 가운데 철도 부문 비중이 2010년 65.0%에서 2020년 74.1%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항만 및 수로 인프라 수요도 증가할 전망

< 에너지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 교통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China Infrastructure Report 2013 1Q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중국 인프라 주요 투자 계획

구분	인프라 투자 계획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철도 부문 기초건설에 약 6,000억 위안 투자 전망</li> <li>- 2015년까지 철도 부문 기초건설에 약 2조 3,000억 위안 투입, 철도 총 연장을 12만 킬로미터로 확장 계획</li> </ul> </li> <li>○ 도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6,000킬로미터 이상 도로 확장 공사 전망</li> <li>· 이 중 고속도로는 3,000킬로미터, 일반도로는 3,300킬로미터 확장 예정</li> </ul> </li> <li>○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82개 공항을 건설, 101개 이상의 공항을 보수 및 개조할 계획</li> <li>·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NDRC)에서는 2012년에 11개 신규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이미 승인</li> </ul> </li> <li>○ 항만 : 중국 교통부는 2020년까지 항만 물동처리량을 65억 톤으로 증가 시킬 계획(2008년 44억 톤임)</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11.1조 위안 투자</li> <li>· 2011-2015년 동안에만 5.3조 위안 투자</li> </ul> </li> <li>○ 발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약 10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추가로 승인</li> <li>· 2015년 까지 원자력 동력 용량을 약 43 GW(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임</li> </ul> </li> <li>- 수력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2015년까지 중국 남·서부 중심 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 설립</li> <li>· 2015년 까지 수력 동력 용량을 약 284 GW(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li> </ul> </li> </ul> </li> <li>○ 기반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선 인프라 : 2015년까지 330천 볼트 이상 수송 가능한 전선 인프라 20만 KM 신규건설</li> <li>- 파이프라인 : 2015년까지 천연가스 수송관 4.4만 KM 신규건설, 원유수송관 8,400km, 정제유수송관 21,000km 신규건설</li> </ul> </li> </ul>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까지 전국 물사용량과 식수공급 능력을 각각 총 6,350억 입방미터, 400억 입방미터로 늘릴 계획</li> </ul>

자료 : 中國鐵道部, 中國發改委, 中國財政部, 中國工信部.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 중국 12차 5 개년 계획, 내외신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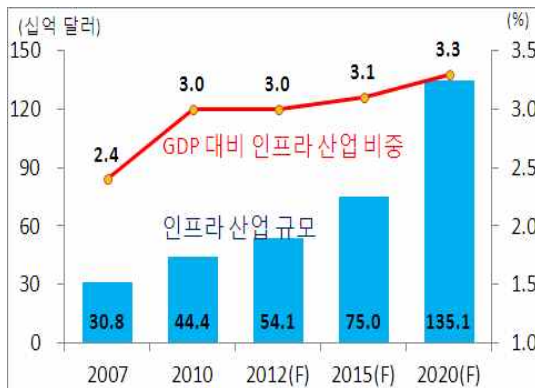
② 러시아

○ 전체 인프라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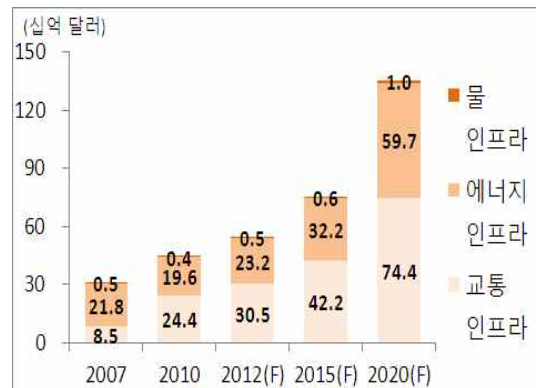
- 러시아는 교통과 에너지 부문 인프라 시장을 중심으로 전체 인프라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러시아의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0년 444억 달러에서 2020년 1,351억 달러로 약 3배 규모, 연평균 1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인프라 시장의 규모는 2010년에 3.0%에서 2020년 3.3%로 확대
- 교통 부문 인프라 시장의 비중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5%대를 유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부문 인프라 시장 비중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44%대를 유지

< 러시아 전체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 부문별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Russia Infrastructure Report 2013 1Q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부문별 인프라 시장

- 교통 부문

-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2018년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와 ‘신 모스크바 정책’<sup>4)</sup> 등으로 교통 부문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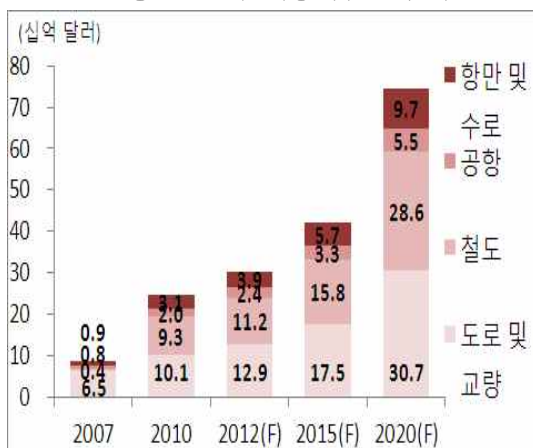
4) 2012년 7월 1일부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Moscow)가 인접한 모스크바 주(Moscow Oblast)의 관할지역 1,480km<sup>2</sup>를 합병하면서 기존의 2.3배로 확장되었음.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도권 개발을 목적으로 모스크바 경제확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 러시아 연방정부와 모스크바 시정부는 ‘6대 비즈니스 및 사회활동 신중심지’ 설정과 교통인프라 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Kiev)를 연결하는 350km의 고속도로를 2013년부터 건설할 예정이며, '철도수송발전 전략 2030년'에 따라 2015년까지 기존 철도 개량에 역점을 뒀, 2016-2030년까지 1만 5,800Km의 철도를 신설할 계획
- 교통 부문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07년 85억 달러에서 2010년 244억 달러로 2.9배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744억 달러로 2010년부터 연평균 11.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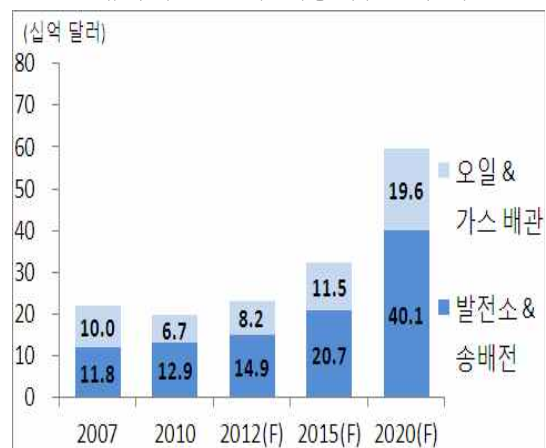
- 에너지 부문

- 발전소 및 송배전 건설과 독일에서 발해를 관통하는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 및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와 같은 오일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로 에너지 인프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
- 총 1,224Km에 달하는 노드 스트림(Nord Stram) 파이프라인 건설비용은 10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총 2,100km의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도 2014년까지 건설할 계획임
- 에너지 부문 시장은 2007년 218억 달러에서 2010년 196억 달러로 10.1% 축소되었으나, 2020년에는 59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약 3배, 연평균 11.8%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교통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 에너지 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Russia Infrastructure Report 2013 1Q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러시아 인프라 주요 투자 계획

구분	투자 계획
교통	<p>○ 철도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수송발전 전략 2030년' 따라 2015년 까지 기존 철도 개량에 역점을 두고, 2016-2030년까지 1만 5,800Km의 철도를 신설할 계획 수립</li> <li>- 2030년까지 13.7조 루블(약 5,500억 달러)을 투자하여 신규 철도건설, 기존 철도 개·보수, 철도차량 증량, 철도교통산업 발전 등을 목표로 제시</li> <li>-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총 680억 달러를 들여 고속철도 건설</li> <li>-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스크바(Moscow)와 상 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를 연결하는 총 660km 철도 건설에 210억 달러 투자</li> <li>- 2012년을 완공 목표로 모스크바 광역 지하철 확장 공사 계획 수립(약 111억 달러 규모)</li> <li>-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에는 TSR(Trans Siberian Railway)과 TKR (Trans Korean Railroad) 연계 운행을 포함하여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포함</li> </ul> <p>○ 도로 부문 : '신 모스크바'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환상형 도로망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 모스크바에 최초로 외곽과 외곽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3개의 현형(chord)도로(북서 현형도로, 북동 현형도로, 남부 현형도로)가 건설되는데, 이 중 두 개는 신 모스크바로 연결할 계획</li> <li>- 구 모스크바의 서쪽과 북동쪽을 연결하는 29km의 북서 환형도로는 이미 건설이 시작</li> </ul>
에너지	<p>○ '에너지 전력 2030'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필요성 강조</li> <li>- 총 1,224Km을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Nord Stram) 파이프 라인의 건설 규모는 105억 달러 이를 전망</li> <li>- 2014년까지 총 2,100km의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 건설 중</li> <li>- 2012~2016년 쿠움바-타이셱 송유관(Kuyumba-Yurubcheno-Taishet)에 960억 루블 투자 계획</li> </ul>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 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지역의 상수도 공사 : 3,200만 달러임</li> <li>- 로스토프나돈(Rostov-on-Don)의 하수처리 시설 공사 : 1.7억 달러 등</li> </ul>

자료 : 모스크바 타임지, 내·외신 종합, 러시아 철도 수송 전략, 러시아 교통국.

### 3. 활용도가 낮은 중·러 인프라 시장

○ 국내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 대비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중·러 인프라 시장 공략이 미흡한 실정

-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 지속 증가

· 국내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는 2012년 현재 648.8억 달러로 2000년 54.3억 달러에 비해 약 12배 증가한 수준이나, 최근 들어 해외건설수주 규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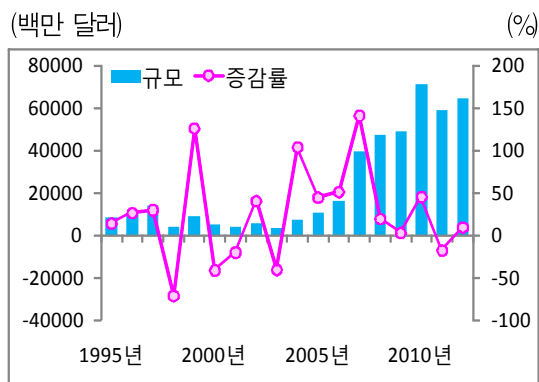
- 중국 건설수주 증가 속 러시아 건설수주 감소

· 국내 중국 건설수주 규모는 2005년 5.5억 달러에서 2012년 15.6억 달러로 약 2.8배 증가  
· 반면에 국내 러시아 건설수주는 2010년 약 3.2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다 2012년에는 약 1.5억 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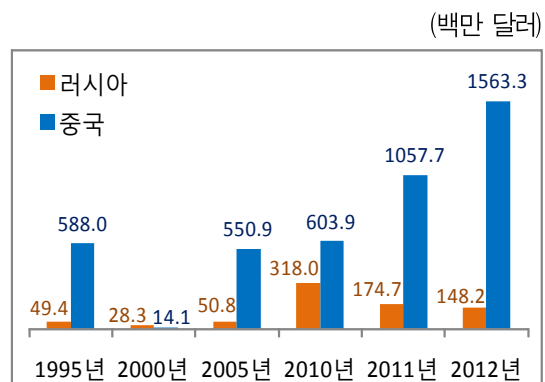
- 국내 해외건설수주 규모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비중은 매우 낮음

· 對中 건설수주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2012년 2.4%에 불과하며, 이는 2005년 5.1%보다 더욱 축소  
· 러시아의 경우, 전체 해외건설수주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0.2%에 불과하며, 최근 감소세 지속

< 국내 해외건설수주 규모 및 증감률 추이 >



< 중국과 러시아 건설 수주 규모 >



자료 :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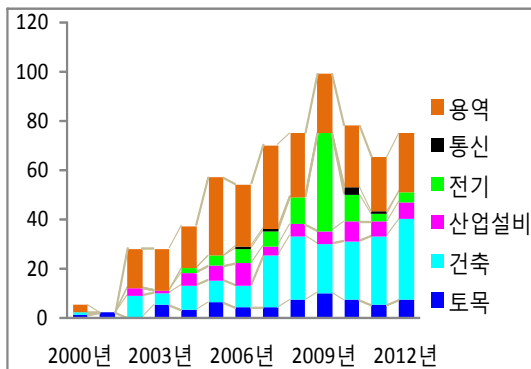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종별 건설수주 건수 및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과 러시아 모두 건축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등 수주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주 1건당 수주 금액이 감소

- 對中 건설수주는 건축 부문에 편중

- 對中 건설수주 건수 중 건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44.0%까지 상승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75.5%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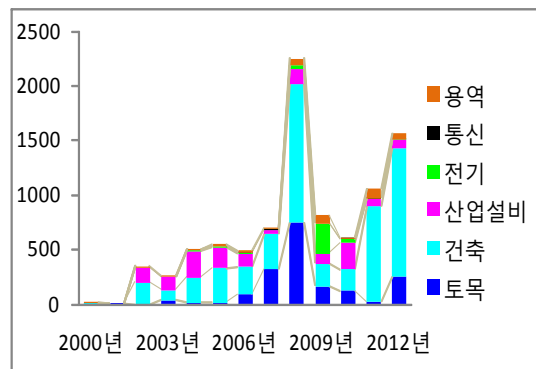
< 공정별 對中 건설수주 건수 추이 >

(건)



< 공정별 對中 건설수주 규모 추이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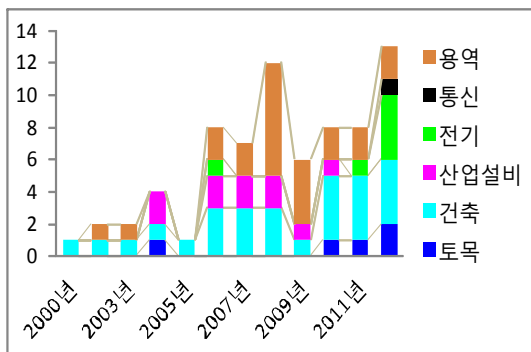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對 러시아 건설수주 건당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건축 부문에 편중

- 對 러시아 건설수주 건당 규모는 2007년 건당 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140만 달러로 급격히 축소됨
- 對 러시아 건설수주도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건설수주 대비 비중이 2012년 30.8%, 금액 기준으로는 50.3%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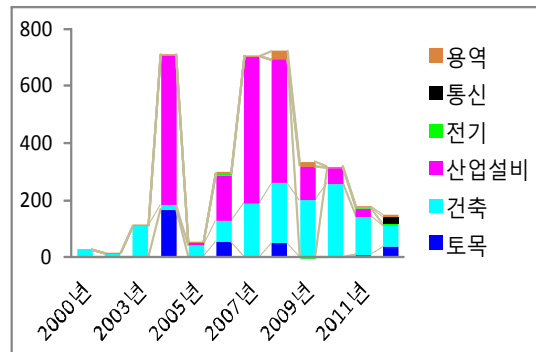
< 공정별 對 러시아 건설수주 건수 추이 >

(건)



< 공정별 對 러시아 건설수주 규모 추이 >

(백만 달러)



자료 :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4. 시사점

- 중국과 러시아 인프라 시장은 향후 성장 기대가 클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기존 인프라 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함
  - 2015까지 중국, 러시아 인프라 시장의 5%만 차지하더라도 인프라 수출 규모는 약 15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이는 2012년 기준 한국의 전체 해외 건설 수주 규모(648.8억 달러)의 약 23% 수준
  - 對 중국, 對 러시아에 대한 인프라 관련 건설기자재의 동반 수출 증대 기대
    - 對 중국, 對 러시아에 대한 총 수출 가운데 건축기자재<sup>5)</sup> 관련 산업 비중이 2000~2012년 평균 각각 45.5%, 2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 對 중국, 러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건축 이외에 통신, 전기, 산업설비, 토목 등과 같은 다양한 공종별 진출 전략 마련을 통해 인프라 수출 다변화를 꾀해야 함
  - 이와 동시에 산업설비와 건축, 토목을 연계하거나, 전기와 건축을 연계하는 등 이분야 업계와의 전략적 연계를 추진
- 對 중국, 러시아 인프라 수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및 국산기자재 사용 확대로 외화 가득률<sup>6)</sup> 개선 모색
  - 생산성, 품질 안정성 증대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인프라 디자인과 건설, 뿐 아니라 금융, 인프라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서비스를 포함한 '패키지 딜'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토록 해야 함

5) HS코드 기준으로 건축자재 관련 산업은 철강(72), 철강 제품(73),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25),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별(68)로, 건설기계 산업 및 장비 관련 산업은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 부분품(84),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85)로 크게 분류 가능.

6) 외화가득률이란 계약금액 중 현지 지출비용을 제외한 국내 유입 외화 비율을 말함.

- 강점을 지니고 있는 국내 건설업 역량을 최대한 이용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현지 최적화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함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업 역량순위는 2011년 12위에서 2012년에는 7위로 5단계 상승한 것으로 평가
  - 국내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고속철도, 인프라 관련 IT 운영시스템 등 비교우위 분야의 경우도 현지에 최적화 전략 추진을 통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건설 기술, 금융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건설사, 금융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 對 중국, 對러시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각 인프라 부문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
  - 인프라 부문은 특성 상 해당 국가의 정부 지원 하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은 물론 국가 간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
  - 아울러 인프라 수출 기업과 공공부문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은 물론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강화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정 민 (2072-6220, chungm@hri.co.kr)  
수석연구위원 이부형 (2072-6306, leebuh@hri.co.kr)

7) 2011년에는 22개국 대상, 2012년에는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국토해양부, '2012년 건설산업 경쟁력 세계 7위,' 보도자료, 2013년 1월 9일.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4	1.9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6	-0.1	-0.2	-0.1	-0.6	-0.3
일본	-0.6	-7.3	-2.8	10.4	0.6	2.0	6.1	-0.9	-3.7	0.2	1.6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0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5월 3일	5월 9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74	1.81	0.07%p
	엔/달러	77.66	79.37	85.86	97.98	98.92	0.94¥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066	1.3157	0.0091\$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974	15,083	109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3,694	14,191	49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47	2.55	0.08%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97.1	1,091.0	-6.1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65.7	1,979.5	13.8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5월 3일	5월 9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5.53	96.11	0.58\$
	Dubai	104.89	92.89	107.99	104.43	103.96	-0.47\$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0.17	291.45	1.2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3.1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5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2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1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